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적 행태에 관한 연구*

김 동 엽**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이주한 필리핀여성들의 초국가적 행태의 근원을 세계화 시대의 시장, 사회, 국가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주로 나타나는 ‘동남아 현상’¹⁾의 한 측면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동남아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정이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주민의 도착과 통합 초기의 맥락은 그들 자신의 미래와 후손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낳는다(Portes and Macleod 1996).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이주민과 관련된 현상이 초기단계인 지금 보다 먼밀한 연구를 통해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대상은 한국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필리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과제(과제번호 KRF-2008-32-B00029)의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한국동남아학회 춘계학술대회(2010년 4월 30일~5월 1일)에 발표와 토론을 통해 보완되었다. 줄고에 대한 유익한 토론과 심사를 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HK연구교수

1) ‘동남아현상’은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개념은 아니며, 한국사회에 가시화되고 있는 동남아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지칭한다.

핀 여성들이다. 이들은 1980년대부터 종교적 연계에 의해 한국남성들과 결혼하여 이주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다양한 경로로 국제결혼이주를 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여성의 수는 6,157명으로 중국(55,874명)과 베트남(30,014명)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한다. 한국인의 국제결혼 건수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을 포함한 일본인이나 몽골인 배우자는 외모적 유사성 때문에 한국사회에 국제결혼이라는 의미로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반면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온 동남아여성들은 외모에서의 다소간 차이로 인하여 보다 크게 부각된다. 필리핀은 국제결혼에 대한 오랜 전통과 다양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앞선 서구인과의 국제결혼과 근래의 동아시아 국제결혼과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으므로 비교사례로서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대만, 한국을 정착지로 한 동남아여성들의 국제결혼이주는 동아시아에 나타나는 특이한 유형의 이주형태이며, 특히 정착지의 사회적 변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론적·정책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국제결혼이주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학계에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한국과 유사한 형태의 국제결혼이주를 앞서 경험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들을 소개한 연구들이 있으며(황달기 1993, 2006; 김연태·설동훈 2005; 박동성 2008),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오는 원인과 경로를 다룬 연구들(김현재 2007; 김현미 외 2008), 그리고 동남아여성과 한국남성 간의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과 대응을 다룬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임형백 2007; 김재련 2008; 김수정·김은이 2008; 김근식·장윤정 2009). 그러나 한국학계에

서 국제결혼이주에 관한 연구의 주류는 동남아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차지하고 있다(윤형숙 2005; 김민정 외 2006; 김오남 2006; 김이선 외 2006; 채옥희·홍달아기 2006; 한건수 2006; 김민정 2007; 김희주·은선경 2007; 박주희·정진경 2007; 설동훈·윤홍식 2008; 남인숙·장혼성 2009). 최근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가정 2세대들이 취학연령이 되고, 학교와 사회에 대한 이들의 적응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정은희 2004; 김갑성 2006; 김민정 2008; 이창호 2008; 최형성 2009). 또한 국제결혼에 관한 많은 수의 학위논문도 배출되고 있다. 이는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의 크기를 보여주며, 차후 보다 많은 연구가 지속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적 행태를 거시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초국가적 행태의 일면을 발견할 수 있다. 미시적 차원이기는 하지만 이용균(2007)의 연구는 보은과 양평의 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통한 한국사회로의 통합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에 관한 외국문헌들도 다양하게 존재하며, 국제결혼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Mullan 1984; Constable 2005; Romano 2008). 특별히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해서는 카힐(Cahil 1990)이 호주, 일본 그리고 스위스 남성과 결혼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분석과 함께 의미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마닐라에 소재하고 있는 스칼라브리니 이주센터(Scalabrini Migration Center)에서 발행

되는 학술지는 국제결혼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아시아 이주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²⁾ 파이프와 로세스(Piper & Roces 2003)는 아시아여성의 이주문제를 지구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국제여성인권단체(ISIS International-Manila)에서 발행하는 잡지(Women in Action, 제3호, 2007)는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에서 국제결혼과 관련된 여성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모아 소개하고 있다. 이주와 정착에 관련된 초국가주의를 이론적으로 다룬 글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Gordon 1964; Portes and Walton 1981; Portes 1994, 2000, 2003; Hannerz 1996; Portes and Zhou 1993; Robinson 2001; Kivisto 2001; Pasco 2002; Guarnizo et al. 2003). 특히 포르테스와 롬바우트의 공동편저 두 권(Portes and Rumbaut 2001; Rumbaut and Portes 2001)은 초국가적 현상에 관한 연구로서 이주 2세대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이주와 정착에 관한 대부분의 이론적 논의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이민국가의 사례들을 다루고 있으며, 인종적 차이에 의한 동화의 어려움을 주로 다루고 있다.

기존연구들을 학문 분과별로 구분해 보면 국제결혼이주 문제가 대부분 인류학적 혹은 사회학적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연구의 주를 이루고 있는 개별사례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정책적 함의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현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드러난 이주의 원인과 흐름 그리고 정착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와 설명이 요구된다. 이는 이미 많은 논의가 진전되어 온 이주와 적응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이

2) 본 센터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The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이다.

주와 적응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민국가의 맥락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국제결혼이주와 이들의 사회적 적응문제는 기존의 이론적 범주를 확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오늘날 이주와 적응의 문제는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의 관점과 논의 속에서 새로운 각도로 접근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연구의 질문은 우선, 필리핀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배경적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이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국가적 행태는 어떠한 유형인가? 셋째, 이러한 유형의 초국가적 행태를 촉진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과 그 가족에게 초국가성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등이다. 이주와 정착에 관한 연구방법으로는 행위자들의 행태를 관찰하는 행태주의적 접근과 이러한 행위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주의적 접근이 가능하다. 제도주의적 접근은 제도가 행위자의 사상과 감정 및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시각이다. “인간의 행동은 사회학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며, 개인의 동기는 선형적으로 주어진다고 보기보다 사회적으로 획득되는 것”으로 이해한다(안청시 2000: 107). 이러한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국제결혼이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주의 원인을 제공하는 출신지와 정착지 내부의 제도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 국제결혼이주 현상은 세계화의 흐름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며, 이러한 흐름이 개별 국민국가들의 시장, 사회, 국가 간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는 동아시아 국제결혼이주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필자는 필리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의 초점을 필리핀 사람들이 국제결혼이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에 덧붙여 기존의 사례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각들을 검증하고 보완하였다. 또한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민단체와 국가기관을 방문하여 국제결혼이주에 대한 이들의 관점과 접근 태도를 알아보았다. 정착지인 한국사회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사례연구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법보다는 각종 문헌과 정책자료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제1장에서는 연구의 주제와 목적 그리고 중요성과 기존연구의 흐름, 그리고 방법적 문제를 간단하게 다루었다.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연구의 개념적 논의와 함께 연구의 논리적 흐름을 제시하는 개념들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실태와 초국가적 행태를 소개하였고, 제4장에서는 이들에게서 초국가적 행태가 나타나는 원인에 관한 분석적 논의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본 연구에 내재된 한계와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하였다.

II. 개념과 이론적 논의

1. 국제결혼이주와 초국가주의

결혼은 ‘삶의 복합적 총체’로서 광의의 문화개념에 포함되면서, 또한 법의 통제 하에 있는 하나의 사회적 제도라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즉 결혼은 개인의 결정에 의해 나타나는 사회적 행위로 볼 수 있다. ‘국제결혼’은 국가성을 전제로 한 개념인 반면, 이주는 국가성의 약화 즉 세계화가 그 배경을 제공한다. 전경수 외(2008)에 따르면, 타인종간 결혼은 단순하게 결혼시장에서의 경제적 수준과 교육,

종교, 문화적 배경이 어떻게 서로 교환되는가 하는 관점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자본주의가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어떻게 만나면서 또 동시에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새로이 형성시키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주는 사회를 변형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주의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된다. 인구학적인 불균형, 경제적 기대에 대한 개인의 합리성,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생존전략, 제도적 원인으로 시장과 국가가 이주의 흐름을 추동하는 경우,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이주의 원인을 설명하기도 한다(Castles 2002). 이주에 관한 배출-유인(Push-Pull)모델은 두 국가의 내적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주의 원인과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중심-주변(Center-Periphery)이론은 체계로서 이주과정을 파악하고, 이 체계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을 발견하려고 한다. 이주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은 모두 고립된 정치적 영역을 가진 국민국가를 단위로 한 세계관에 근거한다. 또한 이주민 발생지역은 구별 없이 빈곤에 허덕이며 고임금 지역으로 나가려 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정착지 사회에서의 동화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출신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진다(Portes and Borocz 1989). 이러한 한계들은 이주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 즉 초국가적 시각에서 다루고자 하는 흐름을 낳았다.

글릭실러(Glick Schiller 1997)는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를 이주민들이 출신지와 정착지를 연결하는 사회적 영역을 건설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초국가주의의 활성화 요인으로는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산, 초국가적 비정부기구(NGO)의 성장, 탈국민적(postnational) 시민의 등장, 대중문화의 융합 등을 꼽는다. 개인적인 위치가 초국가적인 사회적 회로에서 접촉점으로 작용하여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사회적 구성형태로 나타난다(Kivisto 2001). 캐슬즈

(Castles 2002)는 초국가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국민적 정체성을 넘어 모순적이거나 유동적 정체성을 갖는다고 한다. 그리고 초국가적인 개인과 집단들은 그들의 사회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적응하기 위한 창조적 방법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바는 주로 정치적 또는 사회적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위한 전략으로서 국가적 그리고 초국가적 사회공간에서 발생하는 생존적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초국가적 행태를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초국가적 행태는 사적영역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공적영역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사적영역에서의 초국가적 행태는 주로 경제적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송금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출신지 가족이나 친지들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상호방문이나 소개 등을 통해 출신자와 정착지 사이에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활동도 있다. 공적영역에서의 초국가적 행태는 개인 혹은 집단이 출신지 사회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나타난다. 한편 사회문화적 초국가주의는 정착지에서 출신지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공동체적 활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처럼 초국가적 행태는 이주자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이주의 목적과 배경, 그리고 정착지로 이주할 당시의 인적·물적자본의 소유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많은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을 동반한 이주의 경우 공적영역에서의 초국가적 활동에 간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적은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을 동반할 경우 초국가적 활동이 사적영역에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이주자의 개인적 환경 이외에 정착지에서의 삶의 환경도 초국가적 행태의 유형에 많은 영향을 준다. 포르테스(2003)에 따르면, 이주민들이 분산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부각되지 않음으로 인해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경

우에는 초국가적 행태를 나타내지 않으며, 정착지 국가와 사회가 이들에 대해 차별적이며 이주자들이 밀집되어 있을 경우 초국가적 행태가 증가한다고 했다. 초국가적 문화활동이나 시민연합은 외부의 차별적 행태에 대한 위안처가 되며, 위협받는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의 자원이 되기도 한다.

국제결혼이주자들이 더욱 초국가적일 수 있는 이유는 이주 후에도 출신지 가족과 친지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측면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후에는 새로운 삶의 뿌리를 정착지에서 내리게 되고, 더구나 출신지 가족과의 관계가 이주민 2-3세대까지 이어질 것인가는 의문이다. 이처럼 국제결혼과 초국가성은 두 가지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국가적 행위는 출신지 사회에 대한 원거리에서의 사회적 책임, 소속감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건설적인 현상이다. 동시에 이러한 행위는 이주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효능감, 자존감 등을 심어 줌으로써 정착지 국가의 정치적 제도에 통합되는 것을 돕는다(Guarnizo et al. 2003). 특히 포르테스(Portes 1997)는 초국가주의를 주류사회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하층동화(downward assimilation)의 경향이 있는 계층에 대한 하나의 처방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2. 초국가적 행태에 대한 개념틀: 시장, 사회, 국가를 중심으로

초국가적 행태는 이주민들의 이주와 정착과 관련된 맥락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이주의 맥락, 즉 이주의 원인과 정착과정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차원의 논의는 개별 이주자들의 초국가적 행태를 이해하는 거시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 이주는 국민국가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또한 사적인 많은 부분들이 기업이나 가족 등 복잡한 체계 속에 포함된다. 이러한

비공식적 노력들은 국가에 의해 이주의 행태가 적절히 통제될 수 없음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민국가 내적원인으로부터 세계체제 내적인 것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에는 이주민의 이주와 적응이라는 점에서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제적 이동과의 관계 즉 자본, 기술, 제도, 문화혁신 등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보다 거시적인 국제정치경제적 접근이 요구된다(Portes and Borocz 1989).

세계화 시대에 동아시아 지역에 나타나는 국제결혼이주를 폴라니의 시장, 사회, 국가의 역할과 관계의 틀 속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³⁾ 폴라니에 따르면 시장, 사회, 국가는 협조-긴장-모순 관계에 있다고 한다. 시장, 사회, 국가 가운데 가장 우선적 실체는 사회이며, 나머지는 사회통합의 필요에 의해 조정되고 재형성되거나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의해 파괴될 수도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시장은 자유를 보장하지만 적절한 통제가 없을 때 인간을 악육강식의 자연법칙 앞에 내던진다. 국가의 개입과 간섭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지나칠 때 자유의 원칙이 부정되고 인간을 통제의 쇠사슬로 묶어맨다. 폴라니는 시장과 국가를 본질적으로 대립적 관계로 보지 않고, 오히려 시장과 사회 간의 대립으로 접근한다. 국가는 시장과 사회 사이에 표출 가능한 대립의 축에 있으며, 중립적·중간적 위치에서 양자간에 모순, 긴장,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적 실체로 규정하고 있다(안청시 2000).

이와 같은 시장, 사회, 국가의 관계는 19세기의 자유주의적 시장

3) 폴라니에 따르면, 시장은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의 자유를 보장하고, 수요의 변화를 지시하고, 생산자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며, 회계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는 국가와 시장을 포괄하는 새로운 문명의 장이며, 문화적으로 무엇이 지속되어야 하며, 무엇이 더 공정한가를 결정하고 재생산하는 제도이다. 국가는 자율성을 가지고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보장하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사회입법 활동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경제를 사회친화적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안청시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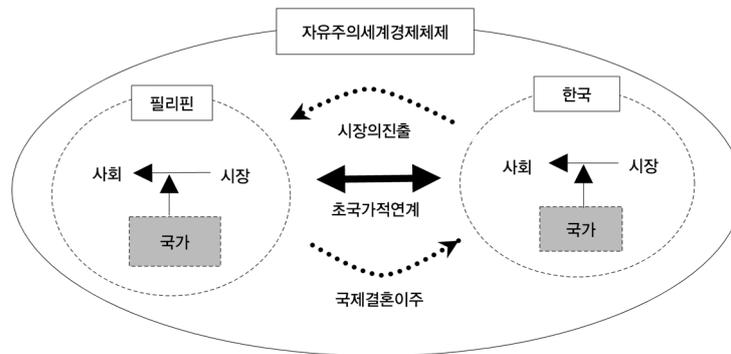
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이 사회의 조절대상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독자적인 경제제도가 되었고, 이에 더하여 시장이 다른 모든 사회제도를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풀라니는 진단했다⁴⁾(안청시 2000). 물론 오늘날의 상황이 풀라니가 진단한 19세기의 자유주의와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세계화의 흐름은 많은 측면에서 19세기 자유주의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개별 국민국가들의 시장, 사회, 국가의 관계는 시장주도적 성향이 부각된다. 지구화는 국가의 성향을 자유주의적 국가로 변화시키고, 시장경제의 논리를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사회는 구성원의 자유가 확대되지만 이전처럼 국가에 의한 보호와 통제장치가 약화된다. 시장은 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 논리에 따라 기능하며 사회와 국가를 그 논리 속에 포획한다. 개별 국민국가체제의 경계인 국경은 통제의 역량이 약화되며, 시장과 사회의 국경을 초월한 교류가 보다 자유롭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 국민국가의 문화적 환경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기존의 사회적 유대와 통합을 약화시킨다.

본 연구는 필리핀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현상을 세계화의 영향과 연관하여 본다. 국제결혼이주의 원인을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확대에 따른 소비기대수준의 상승과 이의 성취를 위한 전략으로서 이주를 선택하게 된다는 일반적인 이주패턴의 일부로서 파악한다. 그러나 이주는 세계화된 경제체제 속에서 특정 시장간 긴밀한 접촉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그 방법도 시장 상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주의 실현

4) 시장은 본래 그 자체로 하나의 독자적 경제제도를 이루지 못한 채 사회 속의 한 부분으로 묻혀 있었으며, 그 기능은 인간의 여러 경제생활에서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그 대신 더욱 중요한 재화의 생산과 분배활동은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습, 종교, 폭력과 같은 비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졌다 (풀라니 1994).

에는 국가의 통제가 작용하지만,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국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출신지에서의 상황과 정착지 국가의 정책과 사회경제적 맥락은 이주자들의 적응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초국가적 행태가 나타난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그림 1>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 1> 국제결혼이주와 초국가주의



Ⅲ.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적 행태

1. 국제결혼이주의 현황

필리핀재외국민위원회(CFO,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에서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필리핀인 수는 남녀를 합쳐 809명이며, 이는 미국(8,333), 일본(4,142), 호주(1,348), 캐나다(1,011)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⁵⁾ 필리핀

5) 이는 등록된 숫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한국에서 발표되는 통계수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는 1996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대조적이다. 한편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여성의 수는 2000년까지 총 1,174명이었던 것이, 2006년부터는 매년 1,000명을 초과하며, 2008년 한해에만 1,857명에 달했다. 한국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해 오는 필리핀여성의 초기형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한 종교단체의 결혼주선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세간의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고,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국적을 표기한 대중적 광고가 가시화되면서 필리핀여성과의 국제결혼이 한국사회에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표 1>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파트너 국적별 성향

배우자국적	여성평균연령	남성평균연령	대학졸업(%)	초혼(%)
미국	32.9	44.3	67.1	84.2
캐나다	32.0	39.2	78.2	83.6
호주	30.1	44.9	66.3	79.8
일본	27.7	43.4	33.0	91.8
대만	28.9	33.6	59.0	97.0
한국	27.2	37.6	50.0	97.6

출처: CFO, 김정석 (2009, 10), 재구성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성향은 파트너 국적별로 달리 나타난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필리핀여성들의 성향은 일본과 대만으로 이주하는 여성들과 유사성을 나타내는 반면, 서구권 국가들로 이주하는 여성들의 성향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남성들과 결혼하는 필리핀여성들의 연령대와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

으며, 초혼의 경우가 많다. 이는 필리핀여성의 국제결혼이주가 특정 계층이나 부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잠재적 국제결혼 공급원이 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국남성과 결혼해서 한국행 출국을 기다리는 필리핀여성 7명을 집중인터뷰 한 김정석(2009)의 연구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결혼 이주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국제결혼에 대한 결정이 자신 이외의 요인에 의해 추동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족이나 주변인의 권유에 의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의 국제결혼 상대에 대한 선택은 제한된 정보를 통한 막연한 기대의 추구에 더 가깝다.

<표 2> 한국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가정환경 비교 (2004년 기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국적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부부의 연령차이	7.4	17.1	12.1	1.8
배우자 재혼여부 (%)				
-초혼여성과 재혼남편	6.9	26.6	28.8	6.8
-재혼여성과 재혼남편	46.2	1.2	0.5	5.7
이주여성 교육수준 (%)				
-중졸이하	48.0	50.1	6.7	4.3
-고졸	45.3	45.3	49.8	36.3
-대졸이상	6.7	4.6	43.5	59.4
남편의 직업(%)				
-전문/관리/사무	23.7	20.0	21.9	46.2
-서비스/판매	32.2	21.8	20.2	18.6
-기능/기술	25.0	24.7	27.1	13.3
-농어업/단순노무	13.9	30.2	26.4	3.7
-기타	5.2	3.3	4.4	18.2
결혼 후 거주지역(%)				
-서울 경인지역	60.9	22.2	31.9	31.2
-기타 광역시	14.6	17.6	14.3	7.0
-기타 국내	24.2	50.2	51.6	15.9
-국외	0.3	0.1	2.3	45.8

출처: (김두섭 2006) <표 1~5> 재구성

한국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필리핀여성들의 생활환경이 중국이나 일본여성들과 일정한 차이를 나타내며, 같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베트남여성과는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부부의 연령차이가 상대적으로 높고 초혼의 경우가 많은 것이 유사하다. 그러나 베트남여성에 비해 필리핀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인 여성들에 비해 남편이 농업에 종사하며,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필리핀여성의 국제결혼이주의 원인을 많은 경우 ‘식민지 역사의 산물’, ‘경제적인 빈곤 탈출의 수단’, ‘가족부양을 위한 방편’ 등과 같이 단순화시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우연적인 요인’, ‘종교적인 요인’, ‘결혼에 대한 기대와 환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Amante 2009; 윤형숙 2005). 특히 물질문명의 발달과 교류의 확대를 통해 남녀 간의 교제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국제결혼의 다양성이 한층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필리핀여성들의 국제결혼이주 원인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는 오히려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을 가진다. 개별 사례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거시적 시각의 도출과 이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적용이 유용한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2. 초국가적 행태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초국가적 행태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가장 일반적인 초국가적 행태는 친정가족과 맺는 사적영역에서의 활동이며, 이는 정기 혹은 부정기적인 송금이나 전화, 혹은 인터넷을 통한 지속적인 관계의 유지로 나타난다. 또한 가족들 간의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의 확대는 물론 출산이나 병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장기방문의 유형도 있다. 이러한 사적영역에서의 초국가적 행태가 필리핀여성들의 초국가적 행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이 공동체적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도 많은 경우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한다. 특히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이나 경제적 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체적 활동에 참여한다. 이들은 종교적 활동이나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고, 혹은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이주여성 공동체가 경제적 영역의 초국가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볼 수 있다. 김민정 외(2006)는 필리핀 이주여성들이 남편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 여의치 않다는 것과 필리핀에 두고 온 가족에게 송금을 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참여하는 사회적 활동이 한국사회에 대한 접근의 한계 때문에 교회나 비공식적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는 곧 초국가적 행태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물론 필리핀 이주여성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문화적 공유와 공감대의 형성 등 정서적 교류, 그리고 상호간의 정보의 교환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의 모임이 단순한 오락이나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장사를 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거나 한국생활의 정보를 교환하는 지극히 실질적인 통로로 이용된다고 보고 있다.

공적영역의 목적이 일부 포함된 초국가적 활동의 하나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교류활동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한국생활에 대한 개인적 이야기에서부터 한국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시사적인 문제까지 포괄적인 주제를 다룬다. 이와 같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남들과 교류하는 필리핀 이주여성들은 인터넷 조작기술과 글을 올릴 정도의 영어능력 등 많은 인적자본을 소유한

사람들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직 직장의 남편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등 생활환경이 이와 같은 유형의 초국가적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들은 경제적 활동이 목적이기보다는 정착지인 한국에 대한 소개와 타국생활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기 위한 활동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성은 한국에서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국제결혼으로 새롭게 생긴 아내 쪽 친족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필리핀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거나 자녀들의 영어교육과 유학, 혹은 노후의 삶을 값싸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은퇴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제결혼이주를 통한 초국가적 행태는 한국에서 형성한 가족 구성원들에게까지 확대된다(윤형숙 2005; 김민정 외 2006). 이주자의 초국가적 성향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으로 초국가적 행태를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변화의 차원에서 보다 역동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특히 정착지 사회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부각된다. 이러한 현상에 내재하는 정치경제적, 제도적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V. 국제결혼이주의 제도적 배경과 초국가적 행태

1. 시장의 역할

국제결혼의 이유에 관하여 많은 기존연구들이 주로 경제적 원인을 지적한다. 김민정 외(2006, 169)는 “사랑 이외에 이주가 결혼의 주요 동기가 되는 것은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한국과 본국의 경제적 위상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으로 논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기

존의 노동이주와 구분하지 않고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일방적인 이주패턴을 적용한 것이다. 국제결혼이주는 결혼이라는 매개가 관련되어 있지만, 그 의미가 이주에 종속적 요소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맥락적 요소인 시장, 사회, 국가의 상호관계 속에서 시장의 활동, 특히 배출-유인 요인에 작용하는 시장의 역할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적 위상 차이가 있는 다양한 국가들 중에서도 특정한 국가로 국제결혼이주가 증가하는 이유를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함이다.

필리핀의 시장구조는 높은 실업률에 농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높고,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광업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다.⁶⁾ 필리핀에서 소비산업이 발달해 있다는 것은 굳이 통계적 수치가 아니더라도 대도시 쇼핑몰의 규모와 고객들의 수만 보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의 소비산업을 지탱해 주는 재원의 상당부분은 해외에 진출한 국민들이 보내오는 송금액에 의존하고 있다.⁷⁾ 즉, 국내의 높은 실업률, 저소득, 고물가라는 시장환경은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6) 필리핀의 실업률은 2000년에 11.2%였고 2008년에는 6.8%를 나타낸다. 2007년도 산업별 고용률은 농업이 36.1%, 제조업·광업이 9.5%, 서비스업이 48.8%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은 분야별로 농업이 14.1%, 제조업·광업이 23.6%, 전기/가스/수도가 3.5%, 건설이 4.6%, 무역이 14.8%, 운송/통신이 7.2%, 금융이 5.4%, 행정이 7.1%, 그리고 기타 19.7% 등이다(한-아세안센터 2009, 22, 28). 이상의 통계를 보더라도 생산성이 낮은 농업분야에 많은 노동력이 있으며, 산업분야의 노동력은 생산규모와 비례해서도 낮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7) 2007년 말 현재 약 827만 명의 필리핀국민이 해외에 진출해 있으며, 그 중 369만 명은 영구거주, 413만 명은 일시거주, 그리고 90만 명은 불규칙 거주로 구분된다. 필리핀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진출 필리핀국민이 송금해 오는 액수가 2000년에 60억 달러였던 것이 2008년에는 164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Songco 2009). 이는 2008년도 필리핀 국내총생산(GDP) 1,675억 달러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해외로 진출하려는 동기를 제공한다. 한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으로 결혼이주한 필리핀여성들의 이주 전 고용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대부분은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한국으로 결혼이주한 필리핀여성들의 국제결혼 이주 동기에 관한 질문에 대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Malibiran 2007, 26-27). 이는 국제결혼이주가 많은 부분 경제적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존 주장들의 근거가 된다. 또한 필리핀여성들에게 국제결혼이 필리핀 시장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주의 동기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한국의 시장은 1995년 세계화정책 이후 급속도로 해외진출이 확대되었다. 필리핀으로의 한국자본과 한국인의 유입은 2000년대 이후 급속도로 확대되었다.⁸⁾ 2006년부터 한국인은 필리핀을 방문하는 외국인 순위 1위를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한국제품과 한국인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기를 모으기 시작한 한국드라마는 필리핀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친숙감을 더욱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상품을 앞세운 기업들의 진출과 각종 목적으로 방문하는 한국사람들, 그리고 한국드라마의 인기방영 등은 한국이 필리핀사람들에게 이주 목적지의 하나로 쉽게 떠오를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결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혼중개업체의 진출은 필리핀의 잠재적 공급여력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필리핀여성들의 한국인과의 결혼은 필리핀시장의 배출요인과 한국시장의 필리핀 진

8) 2004년 한국기업의 필리핀 직접투자 총액이 192억 달러였던 것이 2005년에는 407억 달러, 2006년에는 609억 달러, 2007년에는 1,083억 달러, 그리고 2008년에는 1,821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한국인의 필리핀 방문자 수는 1998년에 6만3천명에서 2001년에 20만4천명, 2005년에 48만1천명, 그리고 2008년에는 61만2천명으로 증가했다(한-아세안센터 2009, 72-73, 94).

출로 인한 유인요인이 그 근원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여성들의 국제결혼이주 동기에 관한 시장의 역할은 다양한 기존연구에 나타나 있으며, 필자의 현지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는 교육과 경제적 수준이 상이한 세 그룹의 필리핀여성들에게 각각 국제결혼에 관한 주제를 놓고 면담을 실시했다.⁹⁾ 첫 번째 그룹은 한국문화, 특히 한국의 대중음악(K-Pop)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다.¹⁰⁾ 이들은 필리핀의 사회경제적 계층구분에서 중·상류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과의 다양한 담화 속에서 조심스럽게 외국인, 특히 한국인과 필리핀여성이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다. 이들의 반응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하는 것, 즉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라고 부정적인 의미로 답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음식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능동적으로 한국문화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기회가 되면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한국에 가서 생활하다가 한국남자와 사귀게 되면 결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는 이들이 접하게 되는 한국문화가 한국으로의 이주를 원하도록 만드는 동기를 유발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가 실현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각자가 처해있는 위치에 따라 다양하다. 즉 학생들의

9) 필리핀에서 사회경제적 계층은 소득수준과 집의 소유여부, 교육정도, 생활편의시설의 소유여부 등 여러 가지의 기준이 적용하여 AB층은 상류층, C층은 중산층, D층은 빈곤층, 그리고 E층은 극빈층으로 구분한다. 한 여론조사기관(Social Weather Station)에서 1998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B층은 전체인구의 약 2%이며, C층은 약 9%, D층은 약 73%, 그리고 E층은 약 17%로 조사되었다(Social Weather Report Survey September 11 to 29, 1998). 필리핀 사회의 계층구조는 오늘날에도 큰 변화가 없으며,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D층이 E층으로 하향 이동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10) 본 면담은 2010년 2월 3일, 국립필리핀대학(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에서 9명의 K-Pop 팬클럽 회원들과 실시했다. 또 다른 한 학생 A에 대한 면담은 2010년 2월 6일, 호텔 커피숍(Pasig City, MM)에서 실시했다.

입장에서는 공부를 지속하고자 하는 유학지로서 한국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그룹은 필리핀 사회경제적 계층구분에서 빈곤층에 속하는 여성들이다. 면담을 한 두 여성은 필리핀에서 여성의 직업 중 외국인 남성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다.¹¹⁾ 이들은 적극적으로 외국인과의 결혼을 희망하고 있었다. 국제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회피하면서, “가족들에게도 너그럽다”는 등의 물질적인 혜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표현했다. 미국과 독일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선택으로 주고 국제결혼을 선호하는 국적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 이들 모두 미국인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그 뒤로 Z는 독일, 한국, 일본 순으로 답했고, F는 일본, 한국, 독일 순으로 답했다. 미국인을 특별히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미국인들에 관한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특히 미국인은 파트너를 사랑하고, 잘 대해주며, “돈도 잘 쓴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일본이나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들은 바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인이나 일본인과 결혼하면 노예처럼 대접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은 그런 경우가 아닐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는 국제결혼 자체에 물질적인 보상을 염두에 둔 것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무보수로 집안일만 강요하는 현실은 노예생활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11) 본 면담은 2010년 2월 13일, 한 호텔(Makati City, MM)에서 26세의 Z와 23세의 F라는 여성과 실시했다. 또 다른 면담은 2010년 2월 14일, 민도로 섬의 식당 겸 바에서 일하는 19세의 A라는 여성과 실시했다.

수 있다. 민도로에서 만난 A는 외국인과 결혼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과 가족을 돌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고 솔직히 답했다.

마지막 그룹은 극빈층에 속하는 여성들로서 필리핀 여성의 직업 구조상 가장 하층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정부(maid)들이다.¹²⁾ 이들도 할 수만 있으면 외국인과 결혼하고 싶으며, 국적별 선호도에 대해서는 미국과 독일 등 서양인을 우선으로 꼽았고,¹³⁾ 일본과 한국 중에는 주변사람의 이야기나 경험을 통해 들은 것을 가지고 각각 달리 대답했다. 일본인과 한국인 중에서는 자신이 개인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접해 본 경험을 기준으로 선호를 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필리핀에서의 한류가 한국인과의 국제결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이들도 ‘돈 때문에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하지만,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인정한다. 55세의 가난한 한국인과 25세의 중산층 필리핀 남성 중(동일하게 사랑할 경우) 누구와 결혼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둘 다 한국인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이는 이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필리핀 중산층 남성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보다 나이 많은 외국인이 더 현실적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면담 내용들로 미루어 보아 기존의 연구사례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필리핀여성들의 국제결혼이주의 주요 원인이 ‘하층민의 경제적인 동기’에 기인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인 것을 알 수 있다.¹⁴⁾ 그렇다고 해서 서구인과 일본인이 주를 이루었던 필리핀여

12) 본 면담은 2010년 2월 12일, 한 호텔(Makati City, MM)에서 22세의 C와 21세의 M이라는 여성과 실시했다.

13) 이들의 백인에 대한 인종적인 선호는 필리핀에서 혼혈, 특히 백인과의 혼혈에 대한 선망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Hall 2000).

성의 국제결혼 상대자로 한국인이 새롭게 부상하는 것을 단순히 경제적 격차에 의한 것으로 단순화 할 수는 없다.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가능케 한 시장의 상호보완적인 위치와 교류의 증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사랑과 결혼 그리고 가족형성이라는 복잡한 형태의 이주를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만 단순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 이유가 아닌 호기심과 관심의 확대가 접촉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국제결혼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특별히 국제결혼에 대해 거부감이 없고, 외국인과 결혼해서 얻은 아이의 보다 흰 피부색이 선행의 대상이 되는 필리핀사회의 경우에는 국제결혼에 대한 높은 선호와 함께 국제결혼 잠재인구가 두텁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¹⁵⁾

2. 사회의 선택과 국가의 역할

국제결혼이주를 시장의 역할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비록 특정국가 상호간 시장교류의 확대가 국제결혼의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관습과 같은 무형의 제도나 이

14) 이러한 인식은 국제결혼의 잠재적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나 주변인들과의 대화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필자는 현지조사 기간 동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필리핀여성들의 국제결혼에 관한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공통적으로 국제결혼의 ‘낭만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필요에 의한 선택’이라는 측면을 더욱 크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5) 필자가 말레이시아를 거쳐 브루나이를 방문하는 기간(2010년 2월 7-9일)에 필리핀 사람이 아닌 동남아인들이 국제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며 영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25세 된 딸과 동행하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딸이 국제결혼을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화를 나누면서 타문화에 대한 높은 수용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브루나이에서 만난 젊은 대학생들도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짧은 면담을 통해 필리핀이 특별하게 국제결혼을 선호하는 국가가 아니라, 동남아사람들이 국제결혼에 대해 대단히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민법과 같은 유형의 제도는 이러한 가능성의 실현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따라서 필리핀과 한국의 사회와 국가가 국제결혼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정책으로 접근하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계층구조가 분명하며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부적 환경이 미흡한 필리핀사회 상황에서 경제적 하층민들은 계층상승을 위한 방편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소외된 사회계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경우 국제결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가는 중요하다. 이는 이들이 사회를 대표하여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의 대변인이기 때문이다. 필리핀 현지조사를 통해 해외이주 문제를 주로 다루는 시민단체들을 방문하여 국제결혼 문제를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인 인식은 국제결혼 문제를 노동이주처럼 적극 권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인신매매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는 않았다. 한 여성 인신매매 보호단체(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의 소장 J는 “필리핀 시민사회에서 일본이나 대만,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로의 결혼이주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고, 단지 일부에서 관심을 갖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¹⁶⁾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다룬 경험이 있다고 소개받은 한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단체(Kanlungan Center Foundation. Center for Migrant Worker)의 관계자 A씨와의 면담에서도 국제결혼 문제를 인권침해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보고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¹⁷⁾ 필리핀의 사회는 식민지를

16) 본 면담은 2010년 2월 5일, 케손시에 있는 한 시민단체(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AP) 사무실에서 소장(Executive Director) Jean Enriquez과 실시했다.

17) 본 면담은 2010년 2월 12일, 케손시에 있는 한 시민단체(Kanlungan Center Foundation. Center for Migrant Workers) 사무실에서 시민운동가 Aladin Daiega씨와 실시했다.

경험하면서 혼혈에 의한 피부색이 사회적 계층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따라서 국제결혼은 일종의 특권의식과도 연결되며 필리핀의 사회에 널리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수용성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국제결혼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의 국가는 시장지배자들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이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필리핀의 국가를 ‘약한국가’(weak state) 혹은 자본에 의해 ‘포획된 국가’(captured state) 등으로 지칭하는 원인이기도 하다(Hutchcroft 1998). 필리핀의 국가 입장에서 자국민의 유출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해외진출 자체가 국민들의 생존전략임을 감안하면 이를 통제할 명분을 갖기가 쉽지 않다.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송금액이 필리핀 시장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이 필리핀 시장지배자들의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가가 국민들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필리핀인들의 모국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2년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2003년에는 ‘재외국민부재자투표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해외로 진출하는 자국민에 대한 보호적 정책은 인권보호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가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적 행위와 연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1990년에는 우편주문신부금지법(Anti-Mail-Order Bride Law, RA6955)을 입안하여 “결혼을 중계할 목적으로 사업체를 차리거나 운영하는 개인, 법인, 연합 혹은 다른 어떠한 조직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필리핀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해외로 이주하는 여성에게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인권보호에 관한 상담(counseling)을 받도록 하고 있다. 비록 민간단체에서 본 상담을 실시하지만, 상담내용은 국가기관인 재외국민위원회

(CFO)에서 제공한다고 한다.¹⁸⁾

한편, 한국의 사회는 국제결혼에 대해 지배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관습과도 연결된다(전경수 외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한국의 사회가 국제결혼을 하나의 선택으로 생각하는 데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심화과정과 관련이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심화는 시장의 영역 밖에 존재하던 사회의 많은 부분을 시장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한국에서 결혼이 시장의 영역에 포함된 것은 이미 오래되었지만, 국제결혼시장이 본격화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국제결혼시장은 2000년대 중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한국내의 결혼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사회적 편견과 비용을 무릅쓰고 가능성이 높은 국제결혼시장에 뛰어들고,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시장의 활동이 확대되면서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사회에 등장한 외국인 신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2005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¹⁹⁾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도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결혼 소외계층의 자구책에 대해 반대하기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제결혼 이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많은 이주여성관련 시민단체들이 독자적으로 혹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주로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성적, 인종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18) 국가가 지정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은 St. Mary Euphrasia Foundation-Center for Overseas Workers(SMEF-COW)와 People's Reform Initiative for Social Mobilization, Inc. (PRISM) 두 곳이 있으며, 필자는 2010년 2월 4일, 케손시에 있는 SMEF-COW를 방문하여 행정직원 Cristi와 상담을 제공하는 목적과 방법, 그리고 반응 등에 관해 면담을 가졌다.

19) 국제결혼과 관련된 언론매체의 기사를 검색한 결과 2000년 이전에는 불과 1,06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한해에 1,546건, 2006년에는 4,152건으로 급증했다(이희연·김원진 2007: 19).

원인이 한국인의 국제결혼에 관한 편협한 인식에 근거한다는 판단 하에 다문화의 현실과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사업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상품화 현상과 중개업체들의 횡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 활동에 관여하기도 한다. 시민단체들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단순히 한국 사회에의 적응과 동화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보다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다(Han 2007: 41-2).

한국에서 국제결혼이주에 관한 국가의 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결혼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 특히 농촌의 총각들이나 도시의 하층민들, 그리고 장애인들이나 다양한 이유로 결혼 생활에 실패한 이혼남들의 결혼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한국사회에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내부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국가는 외국인 배우자의 유입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혹은 앞장서 추진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²⁰⁾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외국인의 유입과 사회적 통합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에는 국적법을 개정하여 결혼 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결혼 후 3년이 경과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혼인이주자들에게 대한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들은 이들의 한국사회로의 문화적 통합과 동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20)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발표한 “전국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정책 현황”에 의하면, 2007년에는 3개도와 60여개의 시·군이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결혼중매사업을 시행하며, 관련조례를 제정한 곳도 26곳에 이른다. 지원비용은 남성 일인당 200만원에서 800만원이며,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모두 28억 4천 8백만원에 달한다(한겨레 2007년 6월 8일, 김민정 2007: 218 재인용). 지자체도 국가의 한 부분이며, 이러한 지자체의 활동이 중앙정부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최순영의원이 지적하고 있다.

전제는 특히 저개발국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에게 적용된다. 이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여야 하고, 한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신지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김두섭 2006).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배우자 수와 차별적 대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면서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법률이 통과되기도 했다.

3. 생존전략으로서의 초국가주의

국제결혼이주자들은 모험적 결단과 이주의 실현 이후에 정착지에서의 적응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다. 필리핀 국제결혼이주 여성들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하지만, 세계화된 시장경제체제의 위계질서 속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민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된다. 더불어 한국의 주류사회에 통합하는데 유용한 인적자본, 물적자본 그리고 네트워크와 같은 초기자본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적 원인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한 경우는 파트너의 경제적 자본과 이익 공유를 통하여 자신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양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한국으로 이주한 필리핀여성들의 대다수는 한국사회에서도 소외된 계층의 사람과 만나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내용에서도 극명히 드러난다. 한국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의 52.9%가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한국에서 함께 살게 될 파트너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경제적 자원과 배경도 지극히 제한적이며, 더구나 신랑 측

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경우에는 가족 내에서 비인격적 불평등 관계가 수립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이 직면하는 언어적, 문화적 그리고 거주 환경적 장벽은 이들의 삶을 더욱 더 주변적 존재로 몰아간다(두레방 2005).

정착지인 한국의 경제적 상황도 국제결혼가정의 경제적 상승이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 필리핀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의 다수가 접하고 있는 직업군이 농업이나 단순노무직인 점을 감안하면 계층상승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가난의 대물림이 구조화되어 가는 한국사회의 현실은 국제결혼가정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이러한 한국의 가정적, 사회적 상황은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이주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토록 이끈다고 볼 수 있다.

포르테스(Portes 2003)에 따르면 초국가적 행태는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높은 인적자원의 요소들, 즉 높은 교육 수준, 보다 긴 정착지 사회의 경험, 그리고 높은 직업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초국가적 행태는 주로 공적영역의 활동으로서 정착지와 출신지 양쪽에서 활발한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며, 특히 출신지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의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 혹은 주변인의 권유에 의해 한국인과 결혼하고 이주하여 주변적이고 고립된 생활을 강요받는 현실에 직면한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은 이들로 하여금 국제결혼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통해 이루고자했던 희망이 먼 현실임을 깨닫게 만들고, 이로 인해 갈등하게 만든다. 그러나 결혼은 가정의 형성과 자녀의 출생이라는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

에 실존적인 전략으로서 경제적 활동에 뛰어들게 되고, 이들이 직면하는 구조적 한계와 초국적 정체성은 이들의 활동영역을 초국가적 연계 속에서 찾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보여주는 초국가적 행태는 국제결혼이주 이후의 삶에 내재된 모순과 장벽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존의 초국가주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확장된 의미의 초국가적 행태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초국가주의 논의가 떠나온 출신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정착지에서도 계속 유지하려는 집단적 공간이나 활동, 더 나아가 출신지 사회의 개선을 위한 국제적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논문에서 다룬 국제결혼이주와 연관된 초국가적 행태는 이주자가 정착지에서 삶을 개척해 가는 생존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노동이주와는 달리 국제결혼이주의 경우 정착지 국가와 사회는 이주자의 사회적 동화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도 다르지 않으며, 국제결혼을 통한 동남아시아이주자들은 이주의 맥락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하층동화’의 경향이 강하다. 파이스트(Faist)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초국가적 결속력의 지속 문제에 대해 상기시키면서, 이주자 스스로의 정착지 문화적응에 대한 지속적 유혹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Kivisto 2001: 569 재인용). 이는 국제결혼이주자들에게 대한 정책적 접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민국가의 배경(context)을 가진 유럽이나 미국 등 인종적 특히 피부색의 완전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한국의 상황에서 이주민 2~3세대에 대해 인위적인 타자화를 유발할 수 있는 다문화정책은 오히려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정책의 방향이 단순히 다름의 인정과 편견의 해소에 들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초국가적 정체성에 내포된 가능성을 강화하

고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V. 결론과 함의

본 연구는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들어와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국가적 행태의 원인을 거시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들의 초국가적 행태는 세계화 시대에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타국 문화에 익숙하며, 품위 있는 직장을 가진 ‘세계시민’의 그것과는 대조적이다. 오히려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생존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보다 발전된 한국으로의 결혼이주는 필리핀에서 누릴 수 없는 물질적 부에 대한 기대나 적어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로 불확실성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선택한 것이다. 이들을 맞이하는 한국인 남편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적당한 배우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편견, 그리고 비용까지 감수하고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결혼을 하는 개개인은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와 목적의 근원에는 필리핀과 한국의 시장구조 속에서 산출되는 사회적 필요들,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 혹은 묵인 등 보다 근본적인 배경이 내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의 이주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이 주로 서구사회로의 노동이주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이민국가의 맥락에서 동화이론과 다문화이론, 그리고 초국가주의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져 왔다. 이주의 한 유형으로서 국제결혼이주 문제는 이주에 관한 이론

적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더불어 정착지에서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하는 국제결혼가정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특히 한국내의 이주자들에게 나타나는 초국가적 행태를 일부 기존연구에 의존하고 있으며, 보다 심도 깊은 조사와 자체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자들의 초국가적 행태를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의 경우도 비교적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포르테스(Portes 2003)에 따르면, 비록 소수에 의한 현상이긴 하지만 초국가적 행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선 전통적인 동화 모델에 적용되지 않는 이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적응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국경을 초월한 활동은 비록 산발적일지라도 출신지의 발전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며, 셋째로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현상과 행태유형의 결과가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초국가적 행태가 오직 이주 1세대에 국한되는 현상인지, 아니면 후손들에게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주 2세대에게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국제이주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경제적 결정으로 파악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포르테스와 보록스(Portes and Borocz 1989)는 국제이주의 사회적 성격에 주의를 기울였다. 인구의 이동과 접촉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는 이주를 장기간 지속되도록 하는 구조이다. 공간을 초월한 접촉, 가족유대, 그리고 그들이 축적하는 새로운 정보와 이익은 순환적 이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계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봤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의 지속과 유지가 새로운 지역적 정체성의 탄생, 즉 동아시아 공동체의 탄생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도 차후의 중요한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주제어: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 초국가주의, 하향동화, 동아시아국제결혼, 동남아현상

〈참고문헌〉

〈국문자료〉

- 김갑성. 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제18 호: 58-95.
- 김근식 · 장윤정. 2009. “국제결혼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 23권 1호: 223-248.
- 김두섭. 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권 1호: 25-56.
- 김민정. 2007. “한국 가족의 변화와 지방 사회의 필리핀 아내.” 『페미니즘연구』 제7권 2 호: 213-248.
- 김민정. 2008. “국제결혼 가족과 자녀의 성장: ‘여러 종류’의 한국인이 가족으로 살아가기.” 『한국문화인류학』 제41권 1호: 51-89.
- 김민정 · 유명기 · 이해경 · 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39권 1호: 159-193.
- 김수정 · 김은이. 2008. “아시아 여성의 국제결혼에 관한 미디어 담론:

- 한국 미디어의 재현방식을 통해.” 『한국언론정보학부』 통권43호: 385-445.
- 김오남.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8호: 33-76.
- 김이선 · 김민정 · 한건수.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2-07.
- 김정석. 2009. “필리핀신부의 결혼관과 국제결혼 사례연구.” 『한국인구학』 제32권 2호: 1-27.
- 김재련. 2008.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家族法研究』 제22권 1호: 91-121.
- 김연태 · 설동훈. 2005. “대만의 국제결혼 이민자 복지정책.” 『中蘇研究』 통권107호: 143-187.
- 김현미 · 김민정 · 김정선. 2008. ““안전한 결혼 이주?” 몽골 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 과 경험.” 『한국여성학』 제24권 1호: 121-155.
- 김현재. 2007. “베트남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민: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한 고찰.” 『東亞 研究』 제52집: 219-254.
- 김희연 · 김원진. 2007. “저개발 국가로부터 여성 결혼이주의 성장과 정주패턴 분석.” 『한국 도시지리학회지』 제10권 2호: 15-33.
- 김희주 · 은선경.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대처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5호: 33-66.
- 남인숙 · 장훈성. 2009.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출신국 문화이해.” 『사회이론』 2009년 봄/여름호: 7-29.

- 두레방. 2005. 『국제인신매매방지와 필리핀 여성이주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필리핀-한국 인턴십 프로그램 자료집』 경기도: 두레방.
- 문순영. 2007.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제72권 1호: 109-142.
- 박동성. 2008. “일본 과소지역에서의 ‘국제가족’의 형성과 지역사회의 대응: 아마가카현의 사례분석.” 『한국문화인류학』 제41권 1호: 129-165.
- 박주희 · 정진경.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2권 4호: 395-432.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설동훈 · 윤홍식.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4권 2호: 109-133.
- 안청시. 2000. “폴라니의 정치경제학 - 『거대한 변환』 과 시장, 국가, 사회의 새로운 이해.” 『현대정치경제학의 주요 이론가들』 안청시 · 정진영 엮음, 83-154, 서울: 아카넷.
- 윤형숙. 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 사회 지방문화』 8권 2호: 229-339.
- 이용균. 2007.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 양평을 사례로.” 『한국 도시지리학회지』 제10권 2호: 35-51.
- 이창호. 2008.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생활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제6권 1호: 3-15.
- 임형백. 2007. “한국농촌의 국제결혼의 특징.” 『농촌지도와 개발』 제14권 2호: 471-491.
- 전남표. 2008. 『국제결혼학 개론』 서울: 문예미디어.

- 전경수·김민정·남영호·박동성. 2008. 『혼혈에서 다문화로』 서울: 일지사.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구』 제13권 3호: 33-52.
- 채옥희·홍달아기. 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건강가정을 위한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응력 향상 교육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0권 3호: 63-78.
- 최형성.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어린 아동의 문제행동 모형 탐색: 중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 여성이민자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제30권 3호: 197-221.
- 플라니, 칼 위음 (이종욱 역). 1994. 『초기제국에 있어서의 교역과 시장』 서울: 민음사.
- 한건수. 2006.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제39권 1호: 195-243.
- 한-아세안센터. 2009. 『2009 한-아세안 통계집』 서울: 한-아세안센터.
- 황달기. 2006. “일본인의 국제결혼 - 그 동기와 발생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33집: 543-572.

〈영문자료〉

- Amante, Maragtas. S.V. 2009. "Korea-Pinoy Mixed Marriages and Tensions in the Multicultural Family." ABS-CBN News Online, <http://www.abs-cbnnews.com> <검색일: 2010. 01. 05>.
- Cahill, Desmond. 1990. *Intermarriages in International Contexts: A Study of Filipina Women Married to Australian, Japanese and Swiss Men*. Quezon City: Scalabrini Migration Center.
- Castles, Stephen. 2002. "Migration and Community Formation under

- Conditions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6, No. 4: 1143-1168.
- Constable, Nicole (ed.). 2005.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Glik Schiller, Nina. 1997. "The Situation of Transnational Studies," *Identities*, Vol. 4, No. 2: 155-166.
- Gordon, Milton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uarnizo, Luis Eduardo, Alejandro Portes and William Haller. 2003. "Assimilation and Transnationalism: Determinants of Transnational Political Action among Contemporary Migrant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8, No. 6: 1211-1248.
- Hall, Roland E. 2001. *Filipina Eurogamy*. Quzon City: Giraffe Books.
- Han, Kukyom. 2007. "Task & Reality of Marriage Migration in South Korea." Paper from *2007 Regional School on Marriage Migration in Asia: A Platform for Research and Action*. 24-29. Organized by Asian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s.
- Hannerz, Ulf. 1996. *Transnational Connections: Culture, People, Plac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utchcroft, Paul D. 1998. *Booty Capitalism: The Politics of Banking in the Philippine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Kivisto, Peter. 2001. "Theorizing Transnational Immigration: A Critical Review of Current Effort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4, No. 4: 549-577.

- Malibiran, Elmer V. 2007. "Filipina Marriage Migrants in Asia." Paper from *2007 Regional School on Marriage Migration in Asia: A Platform for Research and Action*. 24-29. Organized by Asian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s.
- Mullan, Bob. 1984. *The Mating Trad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Pasco, Peggy. 1991. "Race, Gender, and Intercultural Relations: The Case of Interracial Marriage." *A Journal of Women Studies*, Vol. 12, No. 1: 5-18.
- Piper, Nicola and Mina Roces (eds). 2003. *Wife or Workers? Asian Women and Migration*.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Portes, Alejandro. 1994. "Introduction: Immigration and Its Aftermath."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28, No. 4: 632-639. Special Issue: The New Second Generation.
- Portes, Alejandro. 1997. "Immigration Theory for a New Century: Some Problems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1, No. 4: 799-825. Special Issue: Immigrant Adaptation and Native-Born Responses in the Making of Americans.
- Portes, Alejandro. 2000. "An Enduring Vision: The Melting Pot that Did Happe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4, No. 1: 243-248.
- Portes, Alejandro. 2003. "Conclusion: Theoretical Convergencies and Empirical Evidence in the Study of Immigrant Transnationalism."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7, No. 3: 874-892. Special Issue on Trans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Perspectives.
- Portes, Alejandro and John Walton. 1981. *Labor, Class,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New York: Academic Press.

- Portes, Alejandro and Dag Macleod. 1996. "Educational Progress of Children of Immigrants: the Roles of Class, Ethnicity, and School Context." *Sociology of Education*, Vol. 69, No. 4: 255-275.
- Portes, Alejandro and Min Zhou. 1993. "The New Generation: Segmented Assimilation and Its Variant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530: 74-96.
- Portes, Alejandro and Ruben G. Rumbaut (eds). 2001. *Legacies: The Story of the Immigrant Second Genera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Portes, Alejandro and Jozsef Borocz. 1989. "Contemporary Immigration: Theoretical Perspectives on Its Determinants and Modes of Incorpo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23, No. 3: 606-630. Special Silver Anniversary Issue: International Migration an Assessment for the 90's.
- Portes, Alejandro, Luis E. Fuarnizo, and Patricia Landolt. 1999. "The Study of Transnationalism: Pitfalls and Promise of an Emergent Research Field."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2, No. 2: 217-237.
- Romano, Dugan. 2008. *Intercultural Marriage: Promises and Pitfalls*. Boston-London: Intercultural Press.
- Robinson, William I. 2001. "Social Theory and Globalization: The Rise of A Transnational State." *Theory and Society* 30: 157-200.
- Rumbaut, Ruben G. and Alejandro Portes (eds). 2001. *Ethnicities: Children of Immigrants in America*.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Songco, Margarita R. 2009.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and Remittances in the Philippines." Paper presented at the 4th ASEAN+3 High-Level Seminar on Poverty Reduction, and Asia-wide Regional High-level Meeting on The Impact of the Global Economic Slowdown on Pover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edited by ADB.

〈웹사이트〉

대한민국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필리핀재외국민위원회. <http://www.cfo.gov.ph/>

<http://sayjeez.com/>

<http://www.buhaykorea.com/>

(2010. 4. 17 투고; 2010. 5. 25 심사; 2010. 6. 25 게재확정)

<abstract>

Intermarriage Migration and Transnationalism focused on Filipina Wives in South Korea

Dong-Yeob Kim

(HK Research Professor, ISEAS,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nature of transnational activities being involved in by Filipina intermarriage migrants in Korea by examining the institutional backgrounds of market, society and the state. The increasing number of Filipina intermarriage with Korean coincides with the advance of liberal market economy, which governs internal and bilateral interactions between and among the three institutions in both countries. While existing various reasons for engaging in intermarriage, a significant number of Filipina wives in Korea ventured into it with uncertain expectations that they might earn better lives and could support their families. Such hopes usually turn out in vain when they meet the real lives in Korea. It is mainly because their spouses in Korea would rather be those who left behind in the marriage market due to their lack of competitiveness. Filipina wives are also suffering from social isolation caused by language and other barriers such as family relations or rural life they might settle in. Their transnational activities usually tend to be their effort to breakthrough their unexpected condition of difficult lives in

Korea. They usually make use of transnational sort of community activities to cultivate chances to engage in bread earning activity. Migrant's transnational activity has a great impact on sociocultural changes in the country of origin and of arrival. Transnational activity provides migrants with economic opportunities, and uplifts self-esteem as well. Intermarriage couples, especially with Southeast Asian wives, and their offsprings show a tendency of downward assimilation to Korean society. Korean state policy toward them should not simply apply indiscriminated assimilation theory, but take into account their possible strength of transnational identity with which they could find a means to integrate themselves successfully into the mainstream Korean society.

Key words: Filipina Wives, South Korea, Intermarriage Migration, Marriage Market, Downward Assimilation, Transnationalism.